

이슈

2

2019년 9월 2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제3157호

세계 2위 나달에 졌지만 정현의 진화는 계속된다

US오픈서 톱클래스와 대결 의미

‘한국 테니스 간판’ 정현(세계랭킹 170위·한국체대)이 세계 테니스 ‘빅3’ 중 한 명인 라파엘 나달(스페인·2위)과의 대결에서 아쉽게 패했다.

정현은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플라싱메도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2019 US오픈(총상금 5700만 달러·약 690억 원) 남자 단식 본선 3회전에서 나달에 0-3(3-6, 4-6, 2-6)으로 졌다.

2회전에서 기적 같은 역전승을 연출하며 3회전 무대에 올랐으나 대회 우승을 노리는 나달의 벽은 역시 높았다. 경기 초반 본전에도 이렇다 할 반전을 만들지 못하고, 3세트를 내리 내렸다. 이로써 이형택(은퇴)이 2000년과 2007년에 작성한 US오픈 남자 단식 한국 선수 최고 성적(16강) 도전도 다음 기회로 미뤘다.

정현이 나달과 메이저대회에서 만난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다른 빅3인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1위), 로저 페더러(스위스·3위)와는 2018년 호주오픈에서 만나 바 있다. 정현은 이 대회 16강전에서 조코비치를 세트스코어 3-0으로 꺾으며 4강까지 진출하는 기적을 만들었다. 그러나 페더러와의 4강전에서는 발바닥 물집 부상으로 인해 기권하며 최종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정현이 빅3와 메이저대회에서 만나 거둔 성적은 이로써 1승 3패가 됐다. 2016년과 2018년 대결에서 조코비치에게 1승1패를 거뒀고, 페더러와 나달에게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패씩을 기록했다.

빅3는 세계 테니스를 장기간 주름잡고 있는 최고수준의 선수들이다. 메이저대회라는 큰 무대에서 이들과 대결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다. 정현의 2019년 메이저대회는 끝났지만, 그의 발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동행복권
 1등 당첨금 10만원
 만 19세 미만은 NO!
 2등 당첨금 2,240원
 3등 당첨금 1,496,149원
 4등 당첨금 110,655원
 5등 당첨금 1,830,269원

Lotto 6/45 874 회 당첨번호 (추천일: 2019년 8월 31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 15 19 23 28 42	32
1등 총 당첨금	20,108,230,506

*1등 총 당첨금: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금에 기준하며, 당첨 개입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함.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임.

등위 및 당첨개입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18	1,117,123,917 원 총 당첨금 중 45% 이상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 일치 + 2등 보너스 일치	68	49,284,879 원 총 당첨금 중 45% 이상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 일치	2,240	1,496,149 원 총 당첨금 중 45% 이상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 일치	110,655	50,000 원 90,000 원
5등 3개 숫자 일치	1,830,269	5,000 원 5,000 원

*당첨 당첨금: 1회당 당첨금에 기준함. 내역 공제 전
 *동행복권 콜센터: 지역별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 시 유의 사항
 *복권은 만일 1회 10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산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자신 복권 구매는 중독의 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동행복권센터 080-800-0550 www.dhlottery.co.kr

한화, 5개월만에 이용규 징계 해제...일단락된 '트레이드 항명 파동'

고개숙인 이용규 “구단과 팬들에게 너무 죄송”

경기 직전 감독실 찾아 사죄의 인사한 감독도 “잘해보자” 격려와 포옹 “받아준 동료들 감사” 또 고개 숙여 3일부터 재활군 편성돼 스케줄 소화

, 동료 선수, 그리고 팬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한화는 8월 31일 “이용규의 징계를 9월 1일부터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화는 2019시즌 개막을 약 일주일 앞둔 3월 22일, 이용규에게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유는 트레이드 파문이었다. 한화 감독은 올 시즌 이용규를 좌익수 겸 9번타자로 낙점했지만 이에 불만을 느낀 이용규가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했다. 이런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한화는 “트레이드 요청 방법과 시기 등이 부적절하고 팀의 질서와 기강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징계를 내렸다.

징계 탓에 팀 훈련에도 합류하지 못한 그는 그동안 대전고등학교에서 개인 훈련에 몰두해왔다. 그렇게 5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한화는 그의 징계를 풀어줬다. 진심어린 반성을 했고, 팀에 헌신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점을 참작했다는 것이 구단의 설명이었다.

이용규는 1일 대전 KT 위즈전에서 앞서 홈구장을 찾았다. 약 반년 만에 밟는 홈구장. 그는 팀 훈련 시작에 앞서 감독실을 찾았다. 90도로 머리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한 그에게 한 감독은 “고생했네. 잘해보자”고 격려했다. 포옹과 악수, 그리고 토닥임으로 그간의 시간을 갈음했다.

이어 그는 훈련을 앞둔 선수단에게 말했다. 동글게 선 한화 선수단 앞에서 이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던 한화 이용규(왼쪽)가 1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KT전을 앞두고 홈구장을 찾아 한화 감독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화는 1일 날짜로 이용규의 징계를 공식 해제했다.

이용규는 “한 명의 선수로서 팀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다. 선수로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라며 “앞으로 제 잘못을 조금씩 갚아가도록 노력하겠다. 나를 받아준 선배, 동기, 후배 선수들에게 감사하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주장 이성열을 시작으로 송광민, 김태균, 정우람, 제라드 호잉 등과 함께 인사를 나눴다. 정우람은 “그동안 고생했다”고 격려했고, 호잉은 “환영한다”며 격하게 그를 안았다.

한 감독은 취재진과 만나 “사실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 잠도 설쳤다. 정리를

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나도, 구단도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결론지었다. 잘 마무리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는 유니폼을 입지 못할 때 가장 고통스럽다. 한 시즌을 통째로 못 나가지 않나”라며 “기회를 줬으니 팬과 동료 선수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이제 (이용규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용규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개인보다는 팀을 먼저 생각하고, 그라운드 안팎에서 귀감과 모범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질문마다 연신 “죄송하다.

내 탓이다”라고 강조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그보다는 팬들에게 죄송한 게 더 크다”고 마무리했다. 이용규의 올 시즌 복귀는 힘들 전망이다. 그간 실전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3일부터 서산의 재활군에 편성되며, 향후 마무리 캠프 명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용규는 “구단이 짜주는 스케줄대로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감독과 선수단은 그를 품었고 이용규는 용기를 냈다. 이렇게 올 시즌 내내 이어졌던 이용규 트레이드 파문은 일단락됐다. 대전 | 최익재 기자 ing17@donga.com

조수빈 아나, 채널A 뉴스 앵커로 새 출발

(전 KBS아나운서)

‘KBS 뉴스9’ 등 풍부한 진행 경험 4월 퇴사 후 복귀 무대가 ‘채널A’ 토·일요일 오후 7시 ‘뉴스A’ 맡아



채널A 조수빈 앵커

조수빈 전 KBS 아나운서가 채널A 뉴스 앵커로 나선다.

조수빈 아나운서는 채널A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7시에 방송하는 ‘뉴스A’를 28일부터 단독 진행한다. 4월 KBS를 퇴사한 뒤 복귀 무대로 ‘뉴스A’를 선택했다.

조수빈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로서 이례적으로 뉴스 앵커를 맡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다. 2005년 KBS에 입사한 뒤 2008년부터 ‘KBS 6 뉴스타임’과 메인 뉴스프로그램인 ‘KBS 뉴스9’를 비롯해 2013년 ‘KBS 뉴스타임’ 등을 진행하면서 앵커로서 쌓은 시청자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조수빈 아나운서는 1일 “뉴스 앵커로 시청자에게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의 방송이 내 마지막 무대’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KBS 31기 공채 아나운서 출신인 그는 또 2015년 KBS 1TV ‘우리 말 겨루기’, 2018년 KBS 2TV ‘그녀들의 여유만만’ 등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청자와 소통해왔다. 채널A는 이 같은 조수빈 아나운서의 다양한 경험이 제대로 빛을 발할 것이라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수빈 아나운서는 8월 국립암센터에 목소리 재능기부를 하는 등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도 펼쳐왔다. 그는 채널A 주말 ‘뉴스A’ 앵커로 복귀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방송인으로서 더욱 다양한 활동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강남



이상화

결혼 앞둔 강남·이상화, 부부예능 섭외 1순위

남자연예인-여자스포츠스타 커플 방송서 센스있는 입담·재능 증명 이상화 “결혼 후에 의논해 볼게요”

10월12일 결혼하는 가수 겸 방송인 강남과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상화 커플이 벌써부터 부부 예능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예인과 스포츠스타 출신의 만남이라는 호기심이 그 배경이다.

1일 방송관계자들에 따르면 강남과 이상화는 지난달 29일 결혼 소식을 알리자마자 부부 예능프로그램의 섭외 최우선 순위로 떠올랐다. 현재 방송 중인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SBS ‘동상이몽’ 등 제작진으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고 있다.

오랜만에 탄생한 연예인과 스포츠스타 출신 커플을 방송사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이 일찌감치 눈독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남성 스포츠스타와 여성 연예인의 만남은 많았지만, 가수 윤종신과 테니스 선수 출신 전미라 부부처럼 반대 성별의 커플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다. 또 현재 부부 예능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커플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리고 신혼부부라는 점에서 강남과 이상화의 결혼생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들의 예능프로그램 적응력 역시 낮설지 않다. 특히 비연예인인 이상화는 강남과 처음 만난 SBS ‘정글의 법칙’을 포함해 ‘런닝맨’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에서 센스 넘치는 입담으로 재능을 발휘한 바 있다. 강남 역시 본업인 가수보다 방송인으로서는 더 낫다.

이상화의 소속사 본부이엔티 관계자는 1일 “결혼을 발표하자마자 부부 예능프로그램 섭외 요청이 밀려오고 있다”며 “당장 결혼을 앞두고 있어 예식을 마친 뒤 차근 차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백슬기 기자 bsm@donga.com